



‘거리두기 손피켓 등장’ 전북대학교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교정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피켓을 들고 안내를 하고 있다.

안전한 등학교 환경 조성

도교육청, 2학기 개학 맞아 교통안전 점검... 학교 안팎 보행로 등 확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도교육청은 2021년 2학기 교통안전 점검계획을 14개 교육지원청 및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 집중점검은 오는 9월 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점검항목 표 활용한 자체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학교 안팎 보행로, 보행안전 시설물, 교통 안전교육 등

12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 ▲학교 내 도로에 보차도가 분리돼 있는지 ▲학교 출입문에 인접한 횡단보도 주변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지 ▲통학로 주변 공사장에서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점검 결과 취약부분이 발견된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해당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월 신학기에도 자체점검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 신학기마다 안전단 등 ‘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자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각 학교에서는 개학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 보행시 교통 신호 준수,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등 교육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교사채용 교육청 위탁 사립학교법 환영”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 국회 교육위 법 개정안 통과 관련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현 완산학원 이사장)는 20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

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상철 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혁입법이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상철 대표는 2019년도 완산학원에서 발생한 사학비리를 수습하고 학교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관선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고창도서관, 독서의 달 참여 중심 독서활성화 행사 운영

전북도교육청고창도서관(관장 김혜영)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도서관 회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참여 중심형 독서활성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어깨띠가 가습기, 책도끼를 표어로 전시, 공연, 체험, 독서활성화 시상 등 5개 분야에서 총 15개의 행사로 진행된다.

전시는 ▲안녕달 작가의 ‘당근유치원’ 원화와 그림책 전시 ▲가을밤 읽기 좋은 책 2개의 행사를 운영한다.

체험행사는 ▲우리집 서재 네온사인 무드등 만들기 ▲그림책 속 고구마 구마를 만들어볼까? ▲이 순간! 나도 바리스타를 운영하며 참가신청은 25일부터 31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고창도서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또한 독서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곳곳에서 찍은 사진을 포토마그네트 제작하여 기념할 수 있는 ▲도서관과 추억 활자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책과 함께 북크리 인증샷 ▲누구나 도서관 카피라이터 ▲랜덤 북 박스 ▲달콤 바사도 도서 대출 ▲대출권수 더블 이벤트 ▲대출 점지 풀고 대출권만 걸자 ▲도서 나눔 장터 등 8개 행사를 운영한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성기자·고창=김영식기자

일반고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도교육청, 일반고 96곳 대상 고교 교육과정 지원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일반고 학생들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왕의지빌 휴민정홀에서 일반고 96곳 교무부장과 교육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에는 전주, 군산, 익산, 임실지역 47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일에는 그 외 10개 지역 49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내용은 ▲학생 선택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안내 ▲이등 교사(전주)고 2021학년도 자율적 교육과정 정책 연구 발표 ▲한리타 교사(전주중앙여고)와 권혜수 교사(영생고)의 2021학년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발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질의응답 등으로 이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및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수업량 유연화) 사례 공유를 통해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2학기에는 학생 선택 중심 자율적 학교교육과정을 보다 많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신학기 대비 행정실장 회의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은 20일 유·초·중학교 행정실장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행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직원 복무관리 강화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고창 경제 활성화 ▲신학기 학교 회계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여름철 학교시설 안전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

고 두 번째 시간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직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감성코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황근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창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교육 기관들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내 대학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잇따라

전북대, 소수 인원만 참석
진수당서 온라인 중계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지난 20일 오전 10시 진수당 개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김동원 총장 및 본부 보직자들과 학위를 받는 대표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북대학교가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지난 20일 오전 10시 진수당 개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김동원 총장 및 본부 보직자들과 학위를 받는 대표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김동원 총장은 이날 1,108명의 학사와 382명의 석사, 140명의 박사 등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정다운 학생(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등 98명이 우수졸업생으로 선정됐고, 임성희 학생(공과대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등 14명이 핵심인재상을 받았다. 또한 채수형 박사(나노융합공학과) 등 20명이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대학 측은 졸업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을 위해 19일부터 25일까지 건지관장과 중앙도서관, 진수당, 박물관, 뉴실크로드센터, 로즈가든 등 5곳에 포토존을 만들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북대는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포토존이 설치돼 있는 건지관

장 등에 안내 요원을 별도로 배치해 코로나 19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날 대학을 찾은 졸업생과 가족들은 포토존을 찾아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등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에 졸업식을 맞았다. 학위부은 오는 25일까지 각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대어할 수 있다.

김동원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변화에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우리 전대들은 어떠한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도가 걱정스럽지만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총장은 새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배려와 존중, 긍정적인 생각, 도전과 응전의 자세,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 네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정은성기자

군산대, 온라인으로 진행

군산대학교는 지난 20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고, 학위수여자 및 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실시간 중계도 병행하였다. 또한 대학본부, 단과대학 지정 장소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추억이 담긴 사진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학사 377명, 석사 104명, 박사 34명 등 총 515명이고 참석자는 최소화하여 졸업생 및 내외귀빈을 포함해 34명으로 한정했다.

곽병선 총장은 식사를 통해 “사회라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하게 된



군산대학교는 지난 20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졸업생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타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군산=남현복 기자

국토정보 ‘STEP-UP’

전북대, LX공사와 함께
지역 분야 취업 희망학생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정용채 기획처장)이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국토정보 STEP-UP 프로그램’을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김제 벽골제마을에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정보공사와 지역 분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비전공 취업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과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교육부 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와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진 공공기관 관련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과정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등 전북지역 4개 대학 학생 33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대면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김제 벽골제 마을 1개동을 대여하여 운영했으며, 같은 건물 내 숙박, 교육, 식사 제공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외부로부터 접촉을 차단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교육에는 전북지역의 국토정보공사 취업 희망 비전공자 교육을 위해 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를 비롯해 국토정보 관련 이론 교육, 지적전산(CAD), 지적측량, 채용특강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국토정보 공사에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수료 학생에게는 현장학습 2학점이 인정된다.

국토정보공사 STEP-UP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시작해 전북권 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됐으며, 올해엔 특히 국토정보공사에서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드론교육 과정이 추가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정형 학생(인문대 철학과)은 “코로나로 관심 분야에 대한 취업 정보를 얻기 힘들고 교육기회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혼자 공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과정은 기존 취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와 달리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일괄적으로 제공해주고, 국토정보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과의 만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올 하반기에도 지적 살습 및 멘토링, 국토정보 맞춤형 전공 및 면접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이호인 총장 이임예배

전주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제13, 14대 이호인 총장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했으며, 기록과 정신의 구현에 따라 이임예배로 진행됐다.

이임예배는 김동건 전주중부교회 원로목사의 지도로 시작하여, 신동아 학원 흥정길 이사장(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의 희인의 생애라는 설교를 통해 “전주대학교의 오늘을 만들어준 이호인 총장님과 총장님의 리더십에 합심하여 잘 따라온 교직원들께 감사의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호인 총장은 이임사를 통해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